죽음으로 읽는 서양 근현대 철학사 제6강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예가 주인을 인정한 다는 것의 역설

진정한 인정은 오직 인정하는 자를 제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즉 인정하는 자가 죽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인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노예는 살아남기를 택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노예에게 인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헤겔에 의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 즉 역사를 자유롭게 창조하는 개별자는 바로 노예이다. 결국, 죽음이 인간성의 최종 근거이다.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세계 속의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식 혹은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죽음*이다.*

2. 니체와 죽음의 문제

"내 실존은 끔찍할 정도의 짐(eine fürchterliche Last)입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리고 거의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정신적, 윤리적 영역에 대한 가장 교훈적인 시도나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오래 전에 나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렸을 것입니다. - 인식을 갈구하는 이러한 즐거움은 온갖 고문이나 실망을 이겨낸 최고점으로 나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내 생애의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사상과 관점들이 내 위로가 됩니다."(Brief an Otto Eiser in Frankfurt am Main (Anfang Januar 1880),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책세상, 2006, p. 367에서 재인용.)

***신의 죽음**

"'Wohin ist Gott?' rief er, 'ich will es euch sagen!
Wir haben ihn getötet - ihr und ich!
Wir sind seine Mörder! Aber wie haben wir das gemacht? [...]'"(Nietzsche, Friedrich., *Die fröhliche Wissenschaft* (München: Wilhelm Goldmann Verlag, 1959), 166.)
("'신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그는 외쳤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주겠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의 살해자들이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었을까?'")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은 신이라는 초월적 원리가, 즉 초월적 원리로서의 신의 의미가 유럽 문명 속에서 더 이상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초월적인 원리로서의 신의 의미가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것을 뜻하는 신의 죽음이 도래하기 이전에도 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언제나 죽어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감각 지각의 층위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있는 그대로의 신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숨어있는 신(deus absconditus)이라는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신적 사태이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해서 묻는 것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의 것은 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각적 경험 속에 주어질 수 없다.

“Ich verstehe unter der Idee einen notwendigen Vernunftbegriff, dem kein congruirender Gegenstand in den Sinnen gegeben werden kann.”(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98), 432(A 327/B 383).)
(“나는 이념을 그것에 상응하는 대상이 결코 감각 속에서 주어질 수 없는 필연적인 이성 개념이라고 이해한다.”)

“-Voici mon secret. Il est très simple: on ne voit bien qu'avec le coeur. L'essentiel est invisible pour les yeux.
-L'essentiel est invisible pour les yeux, répéta le petit prince, pour se souvenir.”(Antoine de Saint-Exupéry, *Le Petit Prince* (Paris, Gallimard, 1946), Ch. 21.)
(“내 비밀 한 번 들어봐. 아주 간단해. 본다는 것은 오직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해.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어린왕자가 따라 말했다.)

***허무주의**
니체의 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허무주의의 도래이다. 니체에게 있어서 학문적 삶을 지배하는 ‘진리에의 의지’는 곧 ‘허무에의 의지’이며, 허무주의의 직접적 원인이다. 허무주의 속에서 그간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던 최상의 가치들은 탈가치화된다. 니체가 볼 때, 허무주의의 참된 원인은 신념이 허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진리로 너무나도 진지하게 맹신하는 독단적 태도 때문이다.

***위버멘쉬**
니체에게서 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허무주의의 도래는 그 극복으로서의 위버멘쉬(Übermensch)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니체가 볼 때, 문제는 기독교의 신이 또는 신의 의미가 인간의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는 창조적 삶을 억압한다.

“신의 정직함. 전지전능한 존재이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신이 과연 선한 신일 수 있을까? 수많은 회의와 의심이 인류의 구원에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수천 년이나 지속시킨 신, 더욱이 진리를 잘못 파악했을 경우에는 가장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을 각오하라고 요구하는 신이? <자신은>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류가 비참하게 괴로워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신은 잔혹한 신이 아닐까? [...] 모든 종교에는 인류 초기의 미숙한 지성에서 비롯되었다는 특징이 있다.”(니체, 박찬국 옮김, <아침놀>, 책세상, 2004, p. 100.)

“죽어가는 자들을 다루는 그리스도교적 죽음의 코미디를 보라. 죽어가는 자의 약점을 이용해 양심을 고통받게 한다. 죽는 방법을 인간과 인간 과거의 가치판단으로 악용한다.”(니체, <우상의 황혼>, 백승영 옮김, 책세상, 2002, 171~172쪽.)

창조적 삶을 억압하는 기독교적 신의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 요청되는 것은 신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도이다.

위버멘쉬(Übermensch)는 자신의 삶에 대한 운명적 사랑(amor fati)을 바탕으로 매순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유형을 뜻한다. 말하자면, 위버멘쉬는 언제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가운데 극복함으로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다.

"Ich weiss keinen besseren Lebenszweck als am Grossen und Unmöglichen zu Grunde zu gehen: animae magnae prodigus." (Friedrich Nietzsche, *Vom Nutzen und Nachteil der Historie für das Leben*, 1874.)
("'거대한 영혼을 남김없이 소진시켜버림(animae magnae prodigus)'[[[의역하면, 삶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아끼지 않고 완전히 소모시킴 혹은 소진시킴(?)]]]으로써 죽는 것보다, 즉 위대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죽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목표를 나로선 알지 못한다.")

***이성적 죽음/자발적 죽음**
"Stirb zur rechten Zeit: also lehrt es Zarathustra.
Freilich, wer nie zur rechten Zeit lebt, wie sollte der je zur rechten Zeit sterben? [...]
Den vollbringenden Tod zeige ich euch, der den Lebenden ein Stachel und ein Gelöbniss wird.
Seinen Tod stirbt der Vollbringende, siegreich, umringt von Hoffenden und Gelobenden.
Also sollte man sterben lernen; und es sollte kein Fest geben, wo ein solcher Sterbender nicht der Lebenden Schwüre weihte!
Also zu sterben ist das Beste. [...]
Meinen Tod lobe ich euch, den freien Tod, der mir kommt, weil ich will.
Und wann werde ich wollen? - Wer ein Ziel hat und einen Erben, der will den Tod zur rechten Zeit für Ziel und Erben.
Und aus Ehrfurcht vor Ziel und Erben wird er keine dürren Kränze mehr im Heiligthum des Lebens aufhängen. [...]
Dass euer Sterben keine Lästerung sei auf Mensch und Erde, meine Freunde: das erbitte ich mir von dem Honig eurer Seele.
In eurem Sterben soll noch euer Geist und eure Tugend glühn, gleich einem Abendroth um die Erde: oder aber das Sterben ist euch schlecht gerathen.
Also will ich selber sterben, dass ihr Freunde um meinetwillen die Erde mehr liebt."(Nietzsche, *Also sprach Zarathustra?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 Kapital 32(http://gutenberg.spiegel.de/buch/-3248/32).)
("제 때에 죽도록 하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나 결코 제 때에 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제 때에 죽을 수 있겠는가? [...]

나는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이들에게 자극과 맹세가 되는 완성된 죽음을 보여주겠다.
완성된 이는 희망하는 이들과 언약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승리에 찬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죽어간다.
이렇게 죽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이가 살아있는 이들에게 서약을 수여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축제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죽는 것이 최선이다. [...]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죽음을 , 내가 원하기에 내게로 오는 자유로운 죽음을 권하고자 한다.
그러면 언제 나는 원하게 되는가? 목표와 상속자를 갖고 있는 자는 바로 그 목표와 그 상속자를 위해 제 때 죽길 원한다.
그리고 목표와 상속자에 대한 경외로 인해서 그는 삶이라는 성전에 더 이상 말라비틀어진 화환을 걸어놓지 않게 될 것이다. [...]
나의 친구들이여, 너희들의 죽음이 인간과 대지에 대한 모독이 되지 않기를 너희들의 영혼의 정수에 청하노라.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들의 정신과 덕이 마치 대지를 둘러 싼 저녁놀처럼 타올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죽음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나도 역시 이렇게 죽길 원한다. 그리하여 친구인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대지를 더욱 사랑하도록 만들고 싶다.")

"요구된 작업을 다 마친 기계를 꺼버리는 것이 이성적인가? 아니면 그 스스로 정지할 때까지, 달리 말해 고장날 때까지 돌리는 것이 이성적인가? 후자는 유지비를 필요 이상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힘의 오용 아닌가? 다른 어디선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여기서 버려지는 것 아닌가? 기계 자체를 잘못 취급한 것 아닌가? 많은 부분이 그렇듯 불필요하게 효용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말이다. - 나는 비자발적(자연적) 죽음과 자발적(이성적)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연적 죽음은 온갖 이성과 독립적인 죽음으로서 비이성적인 죽음이다. 이것은 마치 가련한 껍데기 실체가 핵심의 지속 기간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마치 병들고 왜곡되고 바보 같은 간수가 고결한 죄수의 죽음 시점을 결정하는 주인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I>,「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p. 185(KGW IV 3, p. 270), 백승영,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철학, 죽음을 말하다>, 산해, 2004, p. 169에서 재인용.)

이성적 죽음/자발적 죽음과 비이성적 죽음/비자발적 죽음을 갈라놓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구별의 기준은 바로 '제 때에 죽는 것(Sterben zur rechten Zeit)'이다. 만일 인간의 삶의 목적이 위버멘쉬라면, 제 때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노력 과정으로서, 자기 상승과 자기 창조 과정으로서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제 때 죽는 죽음은 의미를 추구하는 죽음이다. 이성적 죽음은 삶의 의미를 바라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있는 죽음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성적 죽음은 개인의 삶을, 개인의 삶의 의미를 *완성시켜주는* 죽음인 것이다.